

농업인 돕는 '구원투수' 장성군, 위기 때 더욱 빛났다

정부 시장격리 유찰된 쌀 등 2260t 군비로 전량 매입...장성군·농협 협업 효과

농업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적재적소에서 추진되는 장성군의 핀 포인트(pin point)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 22일부터 쌀값 안정을 위한 자체 매입에 나섰다. 쌀 초과 수확과 수요 감소가 맞물리며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업인의 '구원투수'를 자처하는 장성군의 위기 때 더욱 빛나는 농업정책을 알아 본다.

◇ 정부 시장격리 유찰된 쌀 군비로 전량 매입 처리=지난해 벼값은 직전해인 2020년의 7만원(40kg 기준) 보다 약 11% 하락했다. 생산량은 10% 늘었는데 소비량이 계속 줄어오니 인상은커녕 시세 유지조차 요원한 상황이었다. 참다못한 전국의 쌀 농가들은 지난 해 12월 청와대 앞에서 쌀 시장격리를 촉구하는 시위까지 벌였다.

시장격리는 시중에 초과 공급된 쌀을 정부가 매입해 창고에 격리해 두는 제도다.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미처 쌀을 팔지 못한 농가도 도울 수 있다. 정부는 농업인들의 요구를 수용해 즉시 시장격리를 추진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열린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평균 낙찰가격이 40kg 당 6만 3763원으로 형성돼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치고 만 것이다.

낙찰가격이 낮아지면서, 장성군의 입찰 물량 2136t도 전부 유찰되고 말았다. 정부 시장격리에 희망을 걸었던 농민들은 낙담했다.

정부가 시장격리를 확정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초부터, 장성군은 초과 수확된 쌀을 자체 매입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수확량 증가를 예의 주시하며 선제적인 조치를 준비해 온 셈이다. 이후 시장격리가 추진돼 군의 쌀 매입 건도 보류됐다.

이처럼 올해 초 정부 시장격리가 유찰되자, 군은 사태 해결을 위해 다시 분주하게 움직였다. 먼저 7개 지역농협, 장성 통합 RPC(미국종합처리장) 관계자와 수 차례 회의를 갖고 현황 분석과 대처 방안 마련에 나섰다.

◇ 장성군·농협 '쌍두마차'로 위기의 농가 지원 군=지난 2월 24일에는 지역 내 농업인단체와 만나

매입 가격을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가격은 40kg 기준 6만 4000원으로, 품종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장성군 쌀전업농연합회 박영수 회장은 "지난해 수확한 쌀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 농업인으로서 큰 부담이 된다"면서 "군의 자체 매입으로 소득 보전은 물론, 올해 농사를 더욱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성군과 농협은 시장격리 유찰 물량과 미처 판매되지 않아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던 잔여곡까지 모두 사들일 방침이다. 총 물량 규모는 2260t에 달한다.

매입가격 확정이라는 '큰 산'을 넘은 장성군은 이후 추경예산 편성과 읍·면별 수요 조사, 농협창고 확보 등 자체 매입을 위한 실무를 발빠르게 처리해 나갔다.

매입은 품종별로 진행된다. 지난 22일 '신동진'을 시작으로 28일부터 30일까지는 '조명1호'를 매입한다. 31일부터는 읍·면별로 '새청무'를 사들일 계획이다.

신동진과 조명1호, 새청무 포대별 매입은 진원면 통합 RPC에서 진행된다. 물량이 많은 새청무 톤백 벼는 황룡 DSC(벼 건조·저장 시설)와 진원 상립창고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중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장은 "봄철이 되어 기온이 상승하면 농가에 쌓여 있는 쌀의 상품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시장격리 유찰 물량과 잔여곡을 행정과 농협의 협업으로 매입해 농가 손실과 쌀값 하락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유두석(가운데) 장성군수가 미국종합처리장을 찾아 미국 투입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와 주민들이 용동마을에서 아까시나무를 심고 있다.

장성군 '때 이른' 식목일 행사 이유 있었네

위기를 겪을 때마다 추진되는 장성군의 든직한 지원은 쌀 농가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꿀벌 개체수 급감으로 경영난에 놓인 양봉농가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군이 주도한 '때 이른' 식목일 행사도 실의에 빠진 양봉농가를 위한 지원책의 일환이다.

군은 지난 16일 북하면 성암리 용동마을 인근에서 때 이른 식목일 행사를 가져 지역 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군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인해 식목일보다 20일 가량 앞당겨 행사를 했다고 했지만 때 이른 이번 행사가 주목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식재 수종이 아까시나무였기 때문이다.

꿀벌 개체수 급감 대응 밀원수 12ha 규모 조성 양봉농가 지원 박차...7억 투입 지원사업 추진

심었다.

아까시나무는 대표적인 밀원수다. 벌들이 꿀을 모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준다. 군이 아까시나무를 심은 이유는 꿀벌 개체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꿀벌 개체수 급감으로 대다수의 양봉농가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장성군의 피해도 상당하다. 군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전체 개체수인 1만 60군 가운데 60%에 해당되는 6100군의 꿀벌이 사라졌다.

장성군은 양봉농가 지원에 7억 1000만원(국·도·군비 및 자부담 포함)을 투입해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봉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와 꿀을 모으는 작업에 필요한 차 밀대차를 지원하고, 맞춤 구제약품을 보급해 음에 노제마 등 주요 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수봉군을 선정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양봉·사양 관련 기술교육 실시로 양봉농가의 전문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식재 행사가 열린 용동마을을 포함해 약 12ha(북하면 10ha, 삼계면 1.8ha) 규모로 아까시나무를 식재하는 등 체밀 기반도 든든하게 조성한다.

군의 신속한 지원에 힘입어 경영난에 놓였던 농업인들도 크게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유두석 장성군수는 "유럽에서는 꿀벌이 소, 돼지처럼 중요한 가축으로 취급된다"면서 "양봉농가 지원을 통해 장성군 농업 전체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꿀벌 모시기'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은 정부 시장격리에서 유찰된 쌀은 물론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여미곡까지 자체 매입하고 있다.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